

## T. S. Eliot의 “The Waste Land”에 나타난 주제와 형식

양 현 철  
(나사렛대학교)

Yang, Hyun-Chul. (1998). Theme and Form in T. S. Eliot's "The Waste Land".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4, 249~267.

"The Waste Land" is Eliot's best known poem. It was first published in 1922 and became a famous poem in modern poetry by the 1940's. The poem is a statement of his personal experience with spiritual crisis. This simple outline is complicated and universalized by being set within the structure of 'the Fisher King legend'. The Fisher King legend was studied by Miss Weston in *From Ritual to Romance* and Sir James Frazer in *The Golden Bough* which traced the vegetation myths. It explained the cycle of the seasons in relation to the death and rebirth of a god. The god died in the winter with the death of the vegetation and was reborn in the spring with the rebirth of the vegetation. Sir James Frazer related these ancient rituals within the Christian world. He indicated that the death and rebirth of Christ falls within the pattern of this ancient ritual. Also Miss Weston transformed that ancient ritual into Christian terms, and connected it with the quest for the Holy Grail. Eliot used not only the title, but the plan and a good of the important symbolism of the poem from these two books. "The Waste Land" is a difficult one because of the numerous interruptions in the narrative. On the superficial level, the story covers a 12-hour period in a day. It is also in "the stream of consciousness." It might be called the internal monologue; that is, "the free association of

ideas in the mind of the narrator.” Eliot experiments with both the idea of time and with the stream of consciousness. He employs a number of quotations and allusion from the classic literature. So, his technique in “The Waste Land” consists of the juxtaposition of the present with mythicism and religious symbolism derived from the past. The structure of the poem is built out of the contrasts in time. The poem illustrates his conception of the past as an active part of the present. “The Waste Land” has “a symphonic structure” composed of five parts, which are linked by the repeated themes. The theme is the death and salvation of the Waste Land. It is drawn from the Fisher King myths. Moreover, he has absorbed into the structure of this poem the language, phrases, and associations of other writers. It gave the poem the universality both of theme and of pattern. Also, his intricate and fine techniques added the universality to the poet’s personal material. At last, the verse pattern of the poem follow the same basic structure as the thematic patterns. Again in symphonic style, the verse varies from section to section. The interruption of real time is associated with the flow of consciousness. Though the poem is a complex structure, there are the interweavings of a great deal of ideas into a simple, brief statement. By these poetic techniques the poem manages to have good harmony and unity between the thematic pattern and narrative structure. “The Waste Land” therefore, became the greatest poem in the 20th century modern world.

## I. 서 론

T. S. Eliot(1888~1965)의 “The Waste Land”는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황무지가 된 이 세계에 대하여 묘사한 시이다. 그가 이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21년경이었고 그것을 발표한 것은 1922년 10월 *Criteria*지를 통해서였다. 그 당시에 Eliot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고뇌와 절정의 기간이라 할 수 있었다. 아내의 신경과민, 바쁜 직장생활등 그의 사생활은 대단히 불행하였다. 1921년에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그는 스위스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 휴가 기간 중에 그는 그곳에서 “The Waste Land”의 초고를 완성하였다. 이 초고를 가지고 귀향 중에 파리에 체류중인 Ezra Pound를 만나 많은 부분을 수정받아 약 절반 가량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자신의 불행한 삶이 작품의 여러 곳에 반영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제 1부 “The Burial of the Dead”의 첫부분의 묘사와 제 2부 “The Chess Game”에서 신경 과민한 여인의 신경 불안정적인 대화를 들 수 있다. 이 시에서 두드러진 어조는 제 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문화의 붕괴(특히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시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시의 곳곳에서 독자들은 선악에 대한 의식조차 없이 무의미한 인생을 영위해 가는 현대인들의 삶속에서 느껴지는 “death in life”를 맞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 도시 문화의 타락상은 성도덕의 몰락을 수반하는데, Eliot은 이 시의 제 2부 “The Chess Game”과 제 3부 “The Fire Sermon”에서 신랄히 풍자하고 있다.

Eliot은 1927년 영국 국교도로 종교 전환을 하기까지 끊임없는 고뇌를 하며 자신의 종교적인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인의 모습이 제 5부 “What the Thunder Said”에서 Sir Perceval이 위험 성당으로 성배를 탐색하러 가는 과정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 자신도 이러한 자신의 종교적 추구가 담긴 제 5부를 전체 시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The Waste Land” and especially Part V, which in my opinion is not the best, but the only part that justifies the whole.(Valerie Eliot 129)

Eliot의 시에서 이러한 시인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목소리가 비개성적인 시로 변모케 되는 것은 그의 탁월한 문체기법(style)에서 비롯된다. 그의 시에 쓰인 여러 가지 문체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극적 인물의 등장과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의 나열 방식에 의한 시의 단편적인 구성이다. 이것과 더불어 시의 비개성적 성격을 띠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시의 제목과 題詞(epigraph)이다. 즉, Eliot은 서로 관련성이 드문 단편들을 묶어서 하나의 통일성을 형성케하고, 개별적인 장면들을 하나의 구조로 묶을 수 있는

제목은 썼다. 또한 시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題詞를 고전에서 인용하고 있다. 제목과 제사는 시의 이해에 필수요소가 되며, 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응집요소가 된다. 이것은 암시성이 풍부하고 포괄적이어서 “The Waste Land”로 하여금 더욱 보편성을 지닌 시로 만들었다.

시의 제목인 “The Waste Land”는 고대 성배전설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전설에 의하면 어부 왕은 지주로 말미암아 병들어 불구의 몸이 된다. 그 결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황폐국이 된다. 그 나라의 왕의 병을 치료하고 나라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Perceval 기사는 성배탐색의 모험을 떠난다. 이러한 “Fisher King Legend”의 틀에 맞추어 Eliot은 시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The Waste Land”를 더욱 복잡하고 보편성을 띤 비개성의 시가 되게 하였다. Eliot은 이 시를 단행본으로 출간할 때 50개의 註들을 부쳤는데, 이 註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시의 배경이 되는 두권의 책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Not only the title, but the plan and a good deal of the incidental symbolism of the poem were suggested by Miss Jessie L. Weston's book on the Grail legend : *From Ritual to Romance*. Indeed, so deeply am I indebted, Miss Weston's book will elucidate the difficulties of the poem much better than my notes can do; and I recommend it (apart from the great interest of the book itself) to any who think such elucidation of the poem worth the trouble. To another work of anthropology I am indebted in general, one which has influenced our generation profoundly ; I mean *The Golden Bough* ; I have used especially the volumes Adonis, Attis, Osiris. Anyone who is acquainted with these works will immediately recognize in the poem certain references to vegetation ceremonies.

(*Norton Anthology 2266*)

성배전설은 원래 생명의 기원과 관련되는 고대의식을 기독교적인 상징으로 바꾸어서 성배 탐구의 이야기로 쓴 것이다. Eliot은 자신의 시에 도움이 된 또 하나의 책 *The Golden Bough*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책은 Asia와 Africa등의 토속신앙과 원시인들의 제사의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다. Sir James Frazer는 이 책에서 겨울에는 죽음이 오지만 봄에 다시금 재

생을 가져오는 식물신화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있다. 이것도 원래는 고대 의식구조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꾸어 Christ의 죽음과 재생의 이야기로 전환시켜 놓았다. 특히, Adonis, Attis, Osiris는 “The Waste Land”를 구상하는데 상징을 빌리어 오고 이 시의 구조를 세우는데 이용되었다. 공통적으로 Weston 여사와 Frazer가 연구한 것은 생명의 죽음과 부활(death-and-rebirth)이라는 일종의 원형인데, 바로 이러한 틀 속에 Eliot은 자신의 불행한 사생활과 20세기 인류문명의 황폐함을 관련시켜서 생각했다. 따라서 시인의 개인적인 고뇌의식은 보편성을 유지케 되었으며 비개성의 시가 되게 하였다.

제목과 더불어 이 시로 하여금 비개성의 시가 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題詞는 Rome의 풍자가 Petronius의 *Satyricon* 제 48장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Eliot은 주석에서 밝히고 있다. Cumae의 무녀는 Apollo 신으로부터 장수를 허락받았으나, 젊음은 얻지못했기 때문에 몸이 말라 독속에 매달려 간신히 목숨만 붙여 있을 뿐이다. 이것은 바로 현대 황무지에서 생의 의의를 상실한 인간의 상징이다. 이러한 상태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에 불과하고 차라리 “나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生中死의 상태를 말해준다. 따라서 이 題詞는 “The Waste Land”의 주제중의 하나인 현대인의 정신적인 죽음과 불모에 대한 암시를 함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Eliot의 작품인 “The Waste Land”의 전기적 및 신화적인 배경이 작품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본 고의 본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그의 세련된 시적 기교를 통하여 자신의 시이론대로 비개성화되고, 전통과 현재를 오가는 시간관에 대하여 “The Waste Land”의 Part I부터 V까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며 論하였다. 또한 이 시의 다양한 주제가 어떠한 시적 기교에 의해서 보편성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II. 본 론

### 1. 주제와 형식

“The Waste Land”의 주제는 그 시의 길이만큼 다양한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이 시가 전후세대의 환멸감을 노래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Edmund Wilson은 이 시가 실망과 환멸의 노래여서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반박하고 있다(114). F. R. Leavis는 Eliot의 시가 대체로 생명 없는 환멸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시는 황폐한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시는 시작한테서 끝나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말하였다(103). 이에 대하여 C. Brooks는 “Shall I at least set my lands in order”같은 식귀로보면 이 시의 speaker는 소극적이거나 자신의 의무를 느끼고 있으니 진전이 있다고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Eliot 자신은 *Selected Essays*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When I wrote a poem called *The Waste Land* some of the more approving critics said that I had expressed the ‘disillusionment of a generation,’ which is nonsense. I may have expressed for them their own illusion of being disillusioned, but that did not form part of my intention.(368)

Eliot은 여러 비평가들이 이 시가 이 세대의 실망과 환멸을 표현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작가의 견해에서도 이점을 명백히 알 수가 있다.

Various critics have done me the honour to interpret the poem in terms of criticism of the contemporary world, have considered it, indeed, as an important bit of social criticism. To me it was only the relief of a personal and wholly insignificant grouse against life; it is just a piece of rhythmical grumbling.(Valerie Eliot 1)

이 시를 여러 비평가들이 현대 세계에 대한 비평이란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으나 Eliot에게 있어서는 극히 개인적이고 무의미한 인생의 불평의 해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The Waste Land*”의 해석은 시인의 견해와 비평가의 견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심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가 위와 같이 다양성을 지니는 것은 이 시의 스타일이 지닌 특이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세련된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고 시인의 사적인 경험의 소재를 그가 시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

편성을 지닌 비개성의 시로 승화시켰다.

Eliot은 자신의 비개성화 이론에서 시인은 자신의 정서 내지는 감정과 상용하는 이미지나 장면들, 즉 <객관적 상관물>을 표현하여야 시를 읽는 독자들은 시속에 표현된 것과 同價의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80-3). 이 이론은 상징과 마찬가지로 독자에게 어떤 감정의 상태를 암시해주고 독자의 감정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Eliot은 Pound와 Laforgue에게서 시의 기교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다. Ezra Pound로 부터는 극적독백(dramatic monologue)의 방법을 배웠는데, 이것은 원래 Browning에 의해 개발된 것이었다. 즉 시인은 시속에 극적 인물을 등장시켜 자신이 그 인물과 동일화되어 그 인물의 입을 통하여 발언하는 것이다. 이 수법은 주로 Eliot의 초기 시에서 많이 사용했다. Laforgue로부터 Eliot가 배운 것은 자기 극화와 자기 냉소의 방법, 그리고 구어체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스타일인 건축물적인 구성으로 발전시켰다. 즉 어조와 운율과 사상이 서로 다른 단편들이 교묘하게 배열되어 종합적인 시적 효과를 나타낸다. 이것을 한마디로 ‘모자이크 식의 단편성’이라고 하는데, 진부한 것과 환상적인 것 등이 다채롭게 병치되어 한편의 교향악을 이룬 것이 바로 “The Waste Land”이다. Hugh Kenner는 이러한 Eliot 시의 특징을 “The Zone of Consciousness”(Kenner 41)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Eliot의 시가 시공간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의식의 장속에 여러 요소들 요컨대, 이야기의 줄거리, 실생활에서의 경험, 과거의 기억, 환상적인 비전등이 함께 융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구조적 총체를 이룬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를 지닌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를 찾기는 힘들다. 이것은 수많은 단편들이 부조리하게 모여서 하나의 혼돈스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다양성의 시’이다. 여기에는 단지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이 물처럼 흐르고 있을 따름이다. 거기에도 이 시의 초고의 상당부분이 Ezra Pound에 의해 잘려 나갔으므로 시의 단절과 비약이 심한 많은 부분이 동시적으로 병치되어 있는 일종의 모자이크 시가 되었다. 이와같은 이유들이 이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The Waste Land”의 이야기는 대략 12시간의 일이다. 물론 이 시는 화자의 의식의 흐름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적독백(internal monologue)이다. 이 시 속에 내재하고 있는 ‘Time’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의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할 것이다. Bergson은 시간을 두 가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ime is relative. Bergson further suggests that there are two kinds of time: relative time in the mathematical sense, and relative time in the human sense. Every human being knows that a given period of clock time may appear longer or shorter depending upon the circumstances. A period spent pleurably is likely to seem to fly, while a period spent painfully is likely to seem endless. That these circumstances are real enough is illustrated by expressions in the language such as “time flies,” and “time stands still.”(Kaplan 27-8)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시계상의 시간으로 측정되어지나,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는 시간은 측정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Einstein의 말대로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시 속에서 Eliot은 이러한 시간관과 의식의 흐름 수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다 동서양의 여러 고전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과거와 현재의 병치의 수법으로 나타난다. 이들 수법은 개인의 사적인 경험이 시공을 초월하여 내면화되고 보편화되게 한다. 현대의 황폐상과 과거로부터 연유된 신화와 종교적인 상징의 병치는 이 시의 주요 기법 중의 하나이다. 이 시의 구조는 바로 이러한 시간의 대조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명백하고 극적인 것은 두권의 책 *The Golden Bough*와 *From Ritual To Romance*와 관련된 신화와 현대인의 생활상을 대비시킨 장면 들이다. 이것은 현재의 생생한 반영으로써 과거를 취급하는 Eliot의 과거에 대한 개념을 잘 나타내어 준다. 따라서 시간에 대한 추적은 이 시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Kaplan은 “The Waste Land”에 나오는 시간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에서 논하고 있다.

On the superficial level, the poem gives the feeling that time



stands still, that there is a duration. But the essence of the poem achieves a sense of timelessness. On the literal level the poem covers a twelve-hour period in a single day. In this sense, its relation with the *Ulysses* of James Joyce is apparent. The literal time changes are indicated in the following lines:

61 "Under the brown fog a winter dawn"  
 208 "Under the brown fog of a winter noon"  
 22 "At the violet hour, the evening hour"

But at the same time, this day has a more timeless dimension: it is an eternity. The poem illustrates the concept of the eternal return of the same. Consecutively, the poem has imposed upon it, on still another level of comprehension, a cycle of birth, growth, maturity, decay, death, rebirth-repeating the theme of eternal return. (Kaplan 29)

겉보기에 이 시는 하루 12시간을 소비한다. 즉, 새벽녘의 안개 속에서 시작하여 어스름이 덮치는 저녁쯤에 끝난다. 그러나 이것은 탄생, 성장, 죽음의 순환처럼 반복이 계속되는 무 시간성(timelessness)을 나타낸다.

## 2. Part별 분석

"*The Waste Land*"의 제 1부 "*The Burial of the Dead*"의 표제는 식물 신들의 모상을 매장함으로써 재생을 기원했던 고대인의 풍요와 제식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죽음과 재생의 주제에 대한 집약적인 표현이다. Part I의 제 1행 "*April is the cruellest month*"라는 구절은 Chaucer의 *The Canterbury Tales*의 회막적인 사월의 부정이다. 이 창배 교수는 이 부정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부정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시인 자신이 이 무렵 불행한 생활 속에 시달리다 보니 의욕이 왕성해지고, 찬란한 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도리어 견딜 수 없어 조용한 망각 속에 파묻혀 변화와 활동을 잊고서 살고 싶은 심정을 말한 것으로 해

석할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그러한 시인의 의식이 다름 아닌 쿠메의 무녀나,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어부 왕의 심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생명의 부활을 약속 받은 이 계절에 죽은 목숨만을 이어가고 있으니 그것은 잔인한 운명일 수밖에 없다.(200)

원래 4월은 시간적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이지만, 시인은 죽음의 계절인 겨울을 오히려 그리워하는 상당히 냉소적인 tone으로 시의 첫부분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 다음 시인은 좀더 행복했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던 과거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Starnbergersee와 Hofgarten은 그가 실제로 방문한 장소이고 이 속에 시간과 더불어 하나의 장소(locale)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행에서 “I am not Russian, I come from Lithuania, Pure German”이라고 하면서 화자의 뿌리없음(rootlessness)을 암시한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 후의 ‘a rootless generation’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행복한 꿈에서 깨어나듯이 시인의 의식은 갑자기 변하여 현대의 황무지로 초점이 변한다. “What are the roots that clutch, what branches grow out of this stony rubbish?”(CP 94) 이 시에서 “stony rubbish,” “dead trees,” “dry stone” 그리고 “no sound of water”등 황무지의 이미지가 제시되는데, 이것은 시인의 감정상태에 대한 객관적 상관물이다.

시인은 계속해서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과 현대의 황무지와 같은 삶을 대비시켜 병치를 이루는 묘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써는 Sostris부인의 등장과 뒤이은 가공의 도시(unreal city)의 묘사를 들 수 있다. 점술사인 Sostris 부인은 ‘tarot card’를 치면서 죽음과 재생에 관련된 인물을 소개한다. Weston여사에 의하면 이것은 78매의 카드인데, 거기에 나오는 점, 창, 칼, 접시 등은 남녀의 성기를 암시한다.

이러한 scene과 대비되어 London 시내 아침의 거리풍경이 묘사된다.

Unreal City,  
Under the brown fog of a winter dawn,  
A crowd flowed over London Bridge, so many,  
I had not thought death had undone so many.

(Norton Anthology 2270)

시인은 이 도시의 인파를 비 실재의 허상으로 의식한다. 그것은 첫째, London이 도시의 갈색 안개 때문에 실제 없는 유령의 폐허처럼 보이고, 둘째로는 시인의 비전이 거리의 사람들은 生中死의 죽음의 군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죽음의 도시에다 화자는 교회를 제시하여 인간의 운명과 종교적 구원을 필연적인 관계로 생각한다. 시인은 이렇게 현대와 황무지를 동일시해서 보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 구원 같은 것을 생각해 한다.

제 1부의 끝행 “You! hypocrite lecture! / mon semblable, / Mon frere!”는 보들레르 시에서의 인용이다. 독자들이 자기는 그러한 황무지적인 인간이 아닌 착하고 위선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충고하는 투의 어조이다. 시인의 어조가 이렇게 장면 장면에 따라 급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이 시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Part I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연대기적이라기 보다는 심리적이다. 즉, 의식의 흐름이 일관되고 있다. 원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물은 바로 시간의 상징이다. 이 황무지에 물이 없다는 것은 바로 무 시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Eliot은 이러한 시간의 흐름대신 의식의 흐름 수법을 사용해서 장면마다 끊어지는 시간의 통일성을 일관성 있게 나열하고 있다.

Part II의 “The Game of Chess”의 제목은 Thomas Middleton의 연극에서 빌리어 온 것이다. 이 연극에서 행위(action)는 체스 게임을 하면서 펼쳐지는데, 이 시에서는 성배 탐색을 상징하고 있다. 이 Part II는 황무지적 인간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교계 귀부인의 화려한 생활과 London 술집의 비천한 윤락의 생활이 병치되어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 같이 무의미한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현대의 황무지의 두 인간상을 제시한 것이다.

Part II의 첫부분 “The chair she sat in, like a burnished throne, / glowed on the marble”은 Shakespeare의 *Antony and Cleopatra*의 모작이다. Eliot은 Cleopatra와 현대의 상류층의 부인과 동일시하여 장엄한 역사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불모의 현대의 인간상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황무지의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향락의 추구에 도취되어 성적 쾌락만 뒤쫓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Tereus왕에게 능욕 당한 후 죽어서 나이팅게일로 변신한 Philomela는 “Jug Jug” 소리내며 황야를 메우는 목소리로 울고 있다.

The change of Philomel, by the barbarous King So rudely  
forced; yet there the nightingale Filled all the desert with inviolable  
voice And still she cried, and still the world pursues, “Jug Jug” to  
dirty ears.(Norton Anthology 2272)

Brooks는 이와 같은 능욕은 곧 인간 속화의 내력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어부 왕의 풍요한 나라가 황폐한 것도 그 나라의 여인들의 능욕이 있는 결과 저주가 내렸기 때문이며, 현대의 황무지도 성적 타락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144).

이 정물화 같은 방안에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감각이 날카로워지고 흥분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그녀의 신경질적인 독백이 계속된다.

‘My nerves are bad to-night. Yes, bad. Stay with me. Speak to me. Why do you never speak. Speak. What are you thinking of? What thinking? What? I never know what you are thinking. Think.’  
(Norton Anthology 2272)

이 말은 그녀가 몹시 흥분하여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한 말인데, 현대인의 불안과 초조와 고독을 호소하는 말로 들린다. 이 부분은 실제로 신경증 환자였던 시인의 부인에 대한 묘사이다. 이처럼 시인자신의 경험을 영똥한 문맥 속에 교묘하게 삽입시킴으로써 시를 비개성화하였다.

이 상류층 여인과 대조적으로 다음 장면에선 현대 도시의 하류층 여인의 생활이 제시되어 있다. London의 대중술집에서 밤늦게 두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히려 Browning식의 극적 독백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생산 없는 性에 대한 것으로써, 현대인에게는 性이 생산과는 무관한 쾌락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현대를 황무지로 보는 시의 주제와 직결된다. 대화가 흐르는 중간 중간에 “Hurry up Please Its Time”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됨으로써 현실감 넘치는 극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마감 시간을 독촉하는 이 말은 황무지에 종말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게다가 “good night……” “Ta

to”라는 인사말과 문답은 소리까지 곁들여져 폐문 직전의 술집의 인상이 매우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부분의 마지막은 Hamlet에서 Ophelia가 미처 서 작별 인사하는 것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것은 생의 의의를 상실하고 장기 두기 즉, 性의 유희만 하고 있는 상류층 여인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Shakespeare적인 어귀로써 조소의 인사를 하고 있다.

제 III부 “The Fire Sermon”에서는 어부 왕의 황폐 국과 같이 황량한 Tames강과 거기에서 벌어지는 타락한 성생활의 장면들이 제시되어 있다. Eliot은 욕정에 의한 인간의 타락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부처님의 <불의 설교>와 관련짓고 있다.

제 III부는 Tames강의 황량한 풍경 묘사로부터 시작한다. 잔인한 4월로부터 시작한 어부 왕의 황폐 국에 이제는 낙엽이 지는 가을이 다가와 죽음의 계절을 앞둔 처참한 풍경이 전개된다.

The river's tent is broken; the last fingers of leaf Clutch and  
sink into the wet bank. The Wind Crosses the brown land, unheard.  
The nymphs are departed.(Norton Anthology 2272)

풍부하게 강을 덮고 있던 여름철의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있는 곳에 가을 바람만 불고있는 황량한 풍경이다. 이 장면은 지금까지 등장한 수많은 죽음의 이미지와 더불어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계속해서 Andrew Marvell의 시귀를 왜곡 대조시키고 *The Tempest*에 나오는 Ferdinand 왕자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죽음과 재생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시인의 의식이 언제나 고전의 맥락 속에서 현재와 과거, 그리고 개인과 전통의 동시적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Porter 부인은 달빛 아래서 소다수에 발을 씻으며 Sweeny를 기다린다. 물은 원래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그 본래의 의미인데, 황무지에서는 그것이 타락한 여인이 발씻는 데에 쓰이고 있다. 이 발씻는 장면은 원래 성배탐구의 기사 Percival에 의하여 어부 왕의 불구의 몸이 회복되고, 황폐한 국토에 저주가 풀릴 때 거행되는 발씻는 의식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Porter 부인이 Sweeny를 기다리는 현대의 황무지에는 능욕 당한 Pilomela의 화신인 나이팅게일의 우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The Waste Land*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가 시인의 마스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Eliot가 주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제 III부에 나오는 회합신화의 예언과 Tiresias가 이 시의 중심인물로 되어 있다.

……all the other characteres in the poem merge into Tiresias. Tiresias is a hermaphroditic (that is, sexually both male and female) blind seer; "I Tiresias, though blind, throbbing between two lives, / Old man with wrinkled female breasts……" Just as the one-eyed merchant, seller of currants, melts into The Phoenician Sailor, and the latter is not wholly distinct from Ferdinand, Prince of Naples, so all the women are one woman, and the two sexes meet in Tiresias.(Hugh Kenner 50)

Eliot는 Tiresias가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타의 인물을 모두 통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예언자는 삶도 죽음도 초월하고 성별도 초월하여 모든 사물의 의미를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시에서 Tiresias는 성적인 타락의 장면 즉, 타이피스트의 정사 장면을 초연한 입장에서 보면서 그 의미를 다 알고 있다. Tiresias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인물과 시속의 모든 것이 합쳐지고 있는 포괄적 의식이고 그 의식 자체가 이 시의 의미이다. Tiresias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의식이 이 시의 의미라는 것은 이 시는 Tiresias의 의식 세계가 리듬으로 펼쳐진 일종의 심리적 파노라마이다. Hugh Kenner는 Tiresias를 "the name of a possible zone of consciousness"이라고 했다(50).

시인은 성욕이 불타는 현대의 황무지를 생각하면서 옛 성인들의 말씀을 생각한다. 즉, 동서양의 대표적인 두 금욕주의자인 성 Augustinus의 참회록과 부처의 말을 인용 병치시켰다고 주에서 밝히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성욕과 인간 파멸을 필연적인 관계라고 생각했다. 이 말은 바로 제 III부에서 취급한 성적타락과 현대 황무지와와의 관계를 요약하는 말이다.

제 IV부에서는 페니키아의 水死가 취급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제 III부의 불의 장면과 대조적으로 정욕의 불을 끄는 물이 제시된 것이다. 물과 불은 Eliot의 시에서 생과 사와 마찬가지로 각각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한다. 즉, 역사와 같은 파멸적인 요소로서의 물과 황무지에 필요한 풍요와 구원의 요

소로서의 물과 제옥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연옥으로서 불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니까 물이나 불은 다같이 인간을 파멸시키면서 동시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역설적 기능을 갖는다. 페니키아의 상인 Phlebas도 물로써 죽고 물로써 구원받는다.

제 V부 “What the Thunder Said”의 첫 페이지에서 Eliot은 이 시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The journey to Emmaus, the approach to the Chapel Perilous and the present decay of eastern Europe. The first is derived from Luke, XXIV: 13-31, the section which recounts the resurrection. The second theme is taken from Jessie Weston's book. Miss Weston maintains that the Grail legends are, in part at least, accounts of initiations into cults employing a mystery ritual and claiming an actual knowledge of the future life. The third theme Eliot substantiates in my own note to lines 366-76 of the poem. The citation is from Hermann Hesse, and it states that at least half of Eastern Europe is already on its way to chaos. It goes along singing drunkenly in spiritual madness. The bourgeois laugh at these songs; the saint and seer hear them with tears. (*Norton Anthology 2279*)

제 V부 “What the Thunder Said”는 인도의 고대문학 Upanishad에 나오는 뇌신과 관련이 되며 신의 심판을 암시한다. 시의 첫머리 이미지는 갯세마네 동산과 그리스도의 수난의 장면과 관련이 되며, “the agony in story places”의 이미지는 Perceval 기사가 성배를 찾아 “The Chapel Perilous”로 가는 길을 암시한다. “The shouting and the crying”은 주석에서 밝혔듯이 현대 동부 유럽의 몰락상을 말한다. 수난으로써 참 생명을 얻었던 <그분>은 현대에 와서 그 의의를 상실하였고, 우리는 마치 독 속에 매달린 Cumae처럼 인내로써 간신히 목숨만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서 종교 상실로써 참 생명을 잃은 현대와 현대인의 실상이 Sir Perceval이 위험 성당으로 가는 모험의 길의 황폐 상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성배 탐색의 길은 바위와 갈증의 이미지를 주로 하여 묘사된 30행의

서정시이다. 여기에는 구두점 하나 없이 이어지는 같은 이미지의 반복을 통하여 고난과 시련의 극한 상황을 탁월하게 제시하고 있다. 시인 자신의 종교 추구의 고뇌의식이 성배탐색에 나선 Perceval의 의식과 교묘하게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Part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의 심판의 목소리인 양 우뢰소리가 세 번 들린다. <DA>는 뇌성의 의성음이며, 그 음을 이어받는 <Datta, Dayadhram, Damyata>도 뇌성의 의성음이면서, 각각 “주라, 동정하라, 자제하라”의 뜻을 갖는 말들이다.

그런 다음 시인은 황폐 국의 어부 왕과 동일시되어 황무지에 사는 한 지성인으로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對 사회적 사명감을 각성시키는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I sat upon the shore Fishing, with the arid plain behind me  
Shall I at least set my lands in order?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Norton Anthology 2232)

이 황무지에는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아 어부 왕은 생명을 찾아 낚시질한다. “최소한 내 땅이나 정돈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인은 소극적이고 매우 행동력이 약한 개혁을 부르짖는다.

다음에 각각 출처가 다른 세 개의 인용구가 제시되어 있다. 시인은 이러한 단편의 힘으로 자신의 파멸을 지탱해 왔다고 말한다. 이 말은 현대의 황무지에서 고뇌하는 시인의 심경을 토로한 다분히 고백적인 진술로 들린다. 이 단편 구절들은 시 전체의 주제와 관련이 되고 아울러 시의 주요한 상징들과 관련된다.

마지막에 우뢰소리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Upanishad의 결구에 나오는 “Shantih shantih shantih”로 이 시를 끝맺는다. 이것은 평화를 비는 기도의 말이다. 황무지에 평화를 비는 동시에 괴로운 자신의 심정에 평화를 비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 III. 결 론

지금까지 T.S. Eliot의 작품인 “The Waste Land”의 전기적이고 신화적인 배경이 그의 독특한 스타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편성을 지닌 비개성의 시가 되었는지 Part I 부터 Part V의 작품의 예를 들면서 논하였다. 그러면 과연 Eliot이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요컨대, 구체적으로 표방하고자 한 주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Eliot은 독일 시인인 Gottfried Benn의 소위 “creative germ”(98) 이론에 동의하면서 서정시의 창작심리에 대해서 논한 바 있다. 막연한 충동이 시인의 의식의 밑바닥에 자리잡았다가 그것이 어떤 이미지나 혹은 언어와 결부되어 구체화한다는 것인데, 그 막연한 충동을 Benn은 “창조의 싹”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시는 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이며 자동적으로 쓰여진다. Eliot은 상징주의 시의 영향을 받은 시인이며 그들의 시이론과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을 토대로 한 Eliot은 *The Use of Poetry and the Use of Criticism*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A poet may believe that he is expressing only his private experience; his lines may be for him only a means of talking about himself without giving himself away; yet for his readers what he has written may come to be the expression both of their own secret feeling and of the exultation or despair of a generation.(118-9)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시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시인 자신의 고뇌를 노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 다른 견해인 한 시대의 환멸과 현대인의 정신적인 황무지를 노래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전자는 Eliot의 입장에서 본 비평이라면, 후자는 독자의 입장에서 본 비평이다.

그렇다면 Eliot은 자신의 사적 소재와 그의 시에 나타나는 주제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독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Eliot은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에서 그의 유명한 “the theory of impersonalization”을 발표하여 詩作과정에 대해서 비유로써

설명하고 있다. 시를 쓸 때, 시의 소재와 시인의 감정들은 그의 시속에 그대로 투영되어서는 안되며 이들은 시인의 마음속에서 결합되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때에 시인은 자신의 정서에 상응하는 이미지나 장면들을 객관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로 표현하여야 독자들은 시속에 표현된 同價의 정서를 경험한다.

이 시론은 시인 자신의 직접적인 개인 경험들이 개성 배제의 창작과정을 거쳐서 작품으로 등장하므로 시인의 사적인 감정에서 출발한 시의 자료들은 결국 시인으로부터 완전 독립하여 독자의 영역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The Waste Land”는 바로 Eliot 자신의 독특한 개인 경험에서 비롯되어 표현되었지만 이러한 시적 소재가 비개성화되어 보편성을 지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시가 되었다.

## 참고문헌

- 이창배, 『T. S. Eliot 연구』, 민음사, 1985.
- Abrams, M. H.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 Fourth ed..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1979.
- Brooks, Cleanthe. *Modern poetry and the tradition.*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77.
- Eliot, T. S. *Collected poems 1909-1962.* London : Faber & Faber 1963.
- \_\_\_\_\_. *Selected essays.* London : Faber & Faber, 1980.
- \_\_\_\_\_. *The use of poetry and use of criticism.* London : Faber & Faber Ltd., 1933.
- Eliot, Valerie, ed. *The waste land : A Facsimile.* New York, 1971.
- Frazer, James. *The golden bough.* toronto : The Macmillan Company, 1969.
- Frye, Northrop. *T. S. Eliot : An introduction.* Chicago & London :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1.
- Gardner, Helen, *The art of T. S. Eliot.* London : The Cresset Press, 1958.
- Kaplan, Robert B. *Major poems and plays of T. S. Eliot* Nebraska : Cliff's Notes, 1981.
- Kenner, Hugh. *The invisible poet : T. S. Eliot.* Sondon : Methuen, 1965.
- Martin, Jay, ed. *The Waste Land :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Jersey : A Spetrum Book, 1968.
- Mattiessen, F. O. *The achievement of T. S. Eliot.*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55.
- Weston, Jessie L. *From ritual to romance.* New York : Double-day Anchor Books, 1957.
- Wilks, A. J. *A critical commentary on T. S. Eliot's "The Waste Land".* London : Macmillan, 1971.
- Williamson, George. *A reader's guide to T. S. Eliot.* London : Thomas & Hudson, 1980.